

홍천실버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2년 9월 (제100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운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복지관 소식

홍천실버신문 100호 발행기념

- ◆ 게시장소 : 홍천군노인복지관 현관 로비
- ◆ 게시기간 : 2022년 8월 16일(화)부터~8월 22일(월)까지

100호 발행 축하메시지



▶ 인기 게시글 Best3

- 1위 : 白虎해에 百號를 축하합니다!!
- 2위 :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덩어리 실버신문
- 3위 : 실버신문 100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1,000호" 가자!!
- 실버신문 100호 발행 "축하" ♡
- 실버신문 100호 발행 파이팅
- 실버신문 100호 출간기념 축하합니다.
- 홍천실버신문 100호 축하! 100호! → 200호 → 1,000호 → 10,000호
- 100호 축하드립니다~
- 사랑해요 오래오래 ♡
- 실버신문 100살 go → 200살~
- 실버신문 100회 추카 추카!
- ♡ 100호 축하합니다
- 성공적인 삶은 100세다
- 白虎를 祝賀함
- 실버신문 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어흥~ 백호를 축하합니다 ♡
- 100세 축하! 축하!! 오래도록 지속되길...♡
- 100號를 祝賀합니다.

100세 시대-나만의 장수비결

※ 100세시대 나만의 장수비결

- 1위 → 다보(多步) : 많이 걷는다 ☞ 89표
- 2위 → 소노(小怒) : 적게 화를 낸다 ☞ 87표
- 3위 → 소식(小食) : 적게 먹는다 ☞ 78표
- 4위 → 다면(多眠) : 많이 잔다 ☞ 39표
- 5위 → 소욕(小慾) : 욕심을 적게 부린다 ☞ 34표
- 6위 → 다행(多行) : 실천부터 한다 ☞ 28표
- 7위 → 소언(小言) : 적게 말한다 ☞ 26표
- 8위 → 소변(小煩) : 걱정을 줄인다 ☞ 25표



100세시대 무병장수비결

노화연구 권위자 박상철 교수에 의하면 장수비결은 크게 몇 가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1. 부지런해라!



어르신. 오빠보다 한참이나 이른 나이. 스무살 무렵에 남

어르신께 가까이 다가 가자 어르신께서 부담스럽다면서 저를 있는 힘껏 밀어내십니다.

열아홉살에 공장일부터 시작하여 안해 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편을 만나서 일찍 결혼하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빠 뒷바라지하다가 육남매 자식까지 기르셨다는 어르신. 어르신의 이마에 깊이 새겨진 주름살은 어르신의 나이를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어르신께서 꺼내신 지난 수십년의 시간에 무게가 더해집니다.

요즘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나리 다듬고... 밭농사에 부지런을 떠는 일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 표현해라!



어르신께 어떻게 살아 오셨는지 짧은 인생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냥... 아이 여럿 키우면서 밭농사짓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지

뭐..."

자식이야기, 가족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입밖으로 꺼내기 시작하니 어르신께서는 눈시울이 금방 붉어집니다. 어르신께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하회탈을 꾸미다가 웃음을 지어보이십니다.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표현할 수 없으셨다고 하십니다.

질순을 바라보는 지금 나이에 불과 십여년 전부터 자식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3. 적응해라!



어르신께서는 본인 앞에 주어진 한 장의 밑그림에 다양한 색깔로 색을 칠하십니다. 수박 겉껍데기는 초록색, 줄무늬는 검정색, 수박의 크기도, 모양도 비슷하지

만 어르신은 상대방의 채색활동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채색활동을 일찍 끝마치셨으면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어르신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보니까 앞좌석에 앉아 계셨던 어르신은 크게 의지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던 어르신이었습니다.

박경임 기자(qkrruddla8706@naver.com)

CONTENTS



- 02 - 지령 100호 기념
- 03 - 군정백서·복지구현
- 04 - 지역탐방·평생학습

- 05 - 맛따라 길따라
- 06 - 미래금융
- 06 - 홍천실버신문 100살맞이

- 07 - 인생칼럼·유관기관
- 08 - 수타사 월인심터
- 08 - 인물탐방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지령 100호 기념

지령 100호 ‘홍천실버신문’을 기뻐하며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

100은 10의 열 배라는 숫자적 의미 뿐 만 아니라 많은 의미도 있고 짝 찼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다. 백일기도, 백만장자, 백전노장, 백전백승 등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요즘 많이 쓰는 ‘백세시대’도 마찬가지 의미이다. 100세는 백 살의 의미도 있지만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백일이 되면 백일잔치를 한다. 백일이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독립된 생명체로 살아가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백일잔치는 여태까지 아이가 생존한 것을 감사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가족, 친지, 이웃과 작은 축제를 하는 것이다.

홍천실버신문의 캐치프레이즈

홍천실버신문이 지령 100호를 맞았다. 100호는 단지 100번째 신문을 냈다는 숫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쉽 없이 달려온 인내와 노력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어찌 보면 한정적 주제와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신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나름 어려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홍천실버신문은 지령 100호에 이르기까지 신문에 담겨진 수많은 소식과 사연,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실버세대와 소통해 왔다. 홍천실버신문의 캐치프레이즈는 ‘건강한 노후·활기찬 노후·일하는 노후·행복한 노후’이다.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 모든 것이 힘겨운 실버세대이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달려간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통계상으로 아닐지 몰라도 심정적으로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활력과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부유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가난하다고 여긴다. 비록 전보다 좋은 것 먹고 편한 곳에서 잠을 자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 것이다. 행복은 계량적이지 않다. 다분히 심리적이다. 객관적으로 못하는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지 않는가!

실버세대의 현실

원하던 원하지 아니 하든 우리의 수명은 길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10이 될 수도 있고 120이 될 수도 있다. 노후라고 하지만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 사회는 오랫동안 장수를 축복으로 인정해 왔다. 그리고 공경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이 부담이 된다. 뭔가 자꾸 해주어야 하는 존재로 치부한다. IN-PUT은 끊임없이 되는데 OUT-PUT이 없는 존재처럼 보는 시각이 많다. 더 신랄하게 말하자면 밑 빠진 독 같이 여기는 것이다. 실제로 노인 복지로 인해 청장년의 소득과 일자리, 연금수혜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우리의 인식에 팽배해 있다.



◇1975년 졸업식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의 가슴에 꿈과 야망이 가득하다.



◇100은 도착점이자 또 다른 출발점이다. 백일도, 100호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사회 분위기는 점점 노인을 보살피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고 등에 짐을 지우는 존재로 흘러가고 있다.

실버세대 주류를 이루는 6070세대. 아직 일할 힘이 남아있고 인생을 마무리하기에는 세월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 사회의 주류로 살아왔고 비록 대부분 은퇴는 했지만 이 사회 활동체의 일원으로 남고 싶은 세대이다. 하지만 이 세대에 주어지는 것은 아파트 경비원과 폐지 줍는 일과 청소원과 택시운전사, 심부름꾼 정도의 일이다. 물론 다른 일들이 다양하게 열려져 있다고 하지만 그 문은 너무나 협소하다. 게다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고용보장기간이랄 것도 없는 짧은 기간만 고용되는 처지이다.

누구 말대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가 아니라 예술도 길고 인생도 길다’인 것이 실버세대를 염려 걱정 속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 100세 시대는 어찌하면 누구에게도 축복이 아닐 수 있다. 산목숨을 어찌지 못하고 부동켜 안고 가게 되는 것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울한 노년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은 그렇다. 그렇다고 현실만 탓하고 한숨으로 지낼 수는 없다. 현실은 벽이지만, 그것도 두껍고 높은 벽이지만 그 벽을 뚫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의지만 가지고 되겠냐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자.

노인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학창시절 교실 뒤쪽에 커다랗게 써 붙여 놓은 이 선동적인 문구를 기억할 것이다. 이제 갓 영어를 배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교탁을 두드리며 일갈하시던 그 문구! 이제 노인들에게 필요한 문구가 된 것 같다.

Old men(women), Be ambitious!(노인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인생 2모작, 3모작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실버세대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어떤 변화라기보다 출

발선 상에 다시 서보는 것이다. 100m 단거리 달리기 출발선에서 보여주는 선수들의 끊어질 것만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느껴보자. 8초, 9초에 끝나고 마는 경주에서의 승패가 얼마나 사람들을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가. 그러나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렇다고 42.195km를 완주하는 마라톤과 같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생은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 끝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완주하지 못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가. 인생은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과연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

실버세대와 함께 한 100호, 함께 할 100호 홍천실버신문

인생은 어찌하면 400m 계주와 같은지도 모른다. 때 100m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앞의 주자가 좀 늦게 들어오면 출발이 늦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랴. 열심히 뛰어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을. 인생 계주와 달리기 계주가 다른 것은 인생은 같은 선수가 때 100m마다 달린다는 것이고 달리기 계주는 다른 선수들이 이어 달린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라면 실버세대의 어떤 이들은 3번째 출발선상에, 어떤 이들은 4번째 출발선상에서 있을 것이다. 달리기가 벌써 시작됐다고 미리 걱정하지 말자.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자. 아니 그런 척이라도 하자.

홍천실버신문이 지령 100호까지 달려왔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실렸든 그 달려온 과정을 격려하고 기뻐하자. 실버세대가 이제 인생을 다시 달려갈 결단을 품듯이 홍천실버신문도 ‘건강한·활기찬·일하는·행복한 노후’ (이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있지 않은가!)를 실버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체로서 새로운 100m 계주의 출발선에 서기를 바란다.

군정백서 & 건강100세 맞춤형 복지

실버신문 100호를 맞이하여

하나. 홍천군 군정백서 되돌아보기 둘. 건강 100세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홍천군의 노력

홍천실버신문이 100호를 맞았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2014년 6월부터 매월 1회 홍천실버신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군내 60세 이상 된 분들이 직접 기자가 돼 홍천관내 주요 소식을 취재하고 원고를 작성해 실버신문을 만들고 있다.

또한 매월 약 2,500부 이상의 신문을 발행해 지역 내 어르신 및 관내·외 유관기관에 우편 발송해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백화란 의미는 여러모로 그 뜻이 다양할 때가 있다.

특히 우리의 수명을 말할 때 '백 살 넘게 살라'고 덕담을 나누기도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백번 잘 하다가도 한번 잘 못하면 그 동안 잘 했던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실버신문은 우리군의 소소한 얘기와 노인복지를 더 짜임새 있게 기사를 작성 편집할 것이며,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 군정백서를 되돌아본다.

홍천군의 위치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고 백두대간의 지맥에 자리잡은 협곡상태의 중 산간지대로 동서 길이는 96.1km, 남북 길이39.4km이고,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101.8km이다.

동서남북 각 방향의 끝은 동쪽 끝은 내면 명개리, 서쪽 끝은 서면 동막리, 남쪽끝은 남면 시동리, 북쪽 끝은 두촌면 장남리이고, 면적은 전국 기초단체장중 가장 넓은 면적1,820.3km²을 지니고 있으며 군중에 내면이 448.9km²로 가장 넓고, 홍천읍이107.4km²로 가장 좁다.

홍천군의 상징물인 군화(群花)는 진달래다. '절제'

를 나타내며 '소박한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 군민의 모습을 상징한다.

군목(郡木)은 잣이다 '사계절 푸른' 군민의 향토애와 '강직한 기상'을 상징한다.

군조(郡鳥)는 까치로 '날씬한 몸매와 희소식을 예견'하고 외유내강이란 특징과 함께 우리 군 방문객들을 '환영한다'는 길조로서, 우리 군의 '발전과 번영'을 의미한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건강100세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홍천읍 홍천로1길9(희망리)에 위치해 있고 치매 사각지대 있는 어르신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치매검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치매검진 전수조사는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영귀미면·내촌면·남면·북방면·서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주민 3,4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홍천읍·두촌면·화촌면·서석면·내면의 75세 이상 주민 1,84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인지 저하자 97명을 발견, 적절한 치료를 연계하고 21명을 치매환자로 등록시켰다.



또한 홍천군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시작해 올해 10년을 맞이하였다.

30세 이상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해 교육상담, 관련 합병증 프로그램 운영, 65세 이상 등록환자의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해 질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돕고 있다. 그 결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올해 현재 30~64세 이상 916명, 65세 이상 1만 2787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해 외래실 인원 대비 68%(13만 703명)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등록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질환교육 등 인지율과 지속치료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성과보고회에서 10년간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는 홍천군 건강지표 변화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혈압·당뇨병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군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홍천강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며 홍천강 살리기로 양덕원천 수질개선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장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과 홍천강 400리 물길따라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미약골 발원지 첫 샘물터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산림휴향 인프라구축을 위해 숲길을 조성하고 내면 고원3색 숲길(내면), 바회마을 숲길(두촌면), 숲속 쉼터(내촌면). 가리산 정상 데크계단 설치 등 아름다운 경관 및 공원조성을 하며, 홍천의 옛모습 복원사업으로 '결운리 옹기골' 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실버신문의 발행을 통해 노인분들의 전통을 유지하며 건강복지를 위해 한 걸음 더 나가려 한다.

김명국 기자(myungkook@hanmail.net)

홍천9경

- 1경 팔봉산 - 8개의 암봉과 홍천강이 어우러진 명산
- 2경 가리산 - 석간수가 샘솟는 암봉
- 3경 미약골 - 원시림의 용천수 400리이며 홍천강의 발원지
- 4경 금학산 - 홍천강의 태극문양 전망대
- 5경 가령폭포 - 자연속의 때묻지 않은 비경
- 6경 공작산 수타사 - 문화유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 7경 용소계곡 - 4개의 신비와 절경의 명승지
- 8경 살둔계곡 - 기암석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청정옥수
- 9경 가칠봉 삼봉약수 - 태고의 신비한 약물이다.

지역탐방

가리산

한국의 100대명산 홍천의 가리산

1. 산행장소 : 가리산
2. 산행높이 : 1,051m
3. 산행거리 : 8.67km
4. 산행시간 : 3시간 19분
5. 산행코스 : 가리산휴양림 주차장~무쇠말재~봉정산~2, 3봉~가삼고개~계곡갈림길~강우레이더관측서~가리산휴양림주차장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260-9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의 100대 명산 중 제일가는 산으로 높이가 1,051m로 되어 있으며 코스는 A.B코스로 되어 약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며 천천히 산행을 하면 3시간의 지루하지 않은 코스로 산세가 오목 조목 아기자기한 형태로 잘 꾸며진 등산 코스로 되어 있다.



본 기자가 8월 10일 취재 목적으로 가리산에 들렀을 때는 약 20여 년 전 홍천군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할 때 수도 없이 산행을 하였던 기억을 더듬어 낮은 코스를 둘러보며 옛 추억을 생각하고 현재는 홍천군 산림조합(조합장 박유봉)이 홍천군과의 협의로 위탁 경영하는 것으로 조합원 직원들이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100대 명산중의 하나인 홍천군 가리산은 볼거리와 주변에 맛집이 즐비하게 형성되어 있어 한 번이라도 다녀간 내방객들은 다시 찾고 싶은 명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리산에 대한 일화

- 가리산에 대한 일화와 좋은 이야기도 많아 가리산을 평생에 7번을 오르면 천수를 누리고 많은 복을 받고 한 평생을 잘 산다고도 한다.
- 가리산을 오르면 정상에 노적봉 아래 샘(용천수)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 예로부터 약수라고 전해 오고 있으며 몇 년 전까지 (1990년대) 무속인들이 치성을 울리며 자리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철거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다.
- 또한 중국의 한나라 시조 천자 능이 있었다는 정설이 내려오고 있었으나 지금은 묘 자리만 남아 있다.
- 100대 명산인 가리산 입구에 자리한 폭포가 장관이며 조선시대에 가뭄이 심하면 임금이 찾아와서 기우제를 지내고 가면 많은 비가 내려 가뭄을 백성들이 모면했다고도 한다.
- 현재는 기후 측정기가 설치되고 도로레일로 정상 가까이 오를 수 있고 군과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며 많은 산장과 데크(인공 습지를 관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설치한 인공 구조물)가 조성되어 있어서 내방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통나무집(산막)이 목재로 시공되어 있어서 자연과 한층 더 가깝게 잘 어울리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가리산 정상 부근에서는 소양호를 볼 수 있고 정상 바위 밑에는 사계절 먹으면 장수한다는 석간수가 있어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 홍천군은 100대 명산도 자리하고 있지만 한 번 쯤은 다녀가야 할 수타사가 있고 무궁화의 고장 남궁역 선생의 홍천 무궁화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안태수 기자(taesu9110@naver.com)

평생학습 제5탄

행복한 건강마사지

건강마사지-즐거운 운동, 건강한 100세를 만든다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스스로 배움으로 즐거운 평생학습이 아닌 봉사하는 기쁨과 함께 아프신 어르신 분들을 건강 마사지로 직접 치료해주면서 그 즐거움과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양재수 관장님을 만나기 위해 홍천 장전평리에 위치한 '즐거운 정원 노인요양원'을 찾았다.

관장님은 홍천 출신으로 경희대 스포츠 의과학 석사 및 건강관리학 이학사, 한국운동 재활협회 강원도 교육이사로 재직중이셨고, Health and Wellness 멘토링을 하시고 있었다.

양재수 관장님이 실시하는 평생학습 강좌는 건강마사지로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삶의 질 향상, 스트레스 해소 지도법을 병행하면서 마사지로 신체 혈액 순환 및 면역력 증강,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병중의 삶의 질 향상과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으로는 고관절, 요추, 슬관절 운동재활 등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 농사일을 지으면서 고질병

인 고관절 질환을 중점적으로 재활 및 건강마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과정을 두어서 추후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즐거운 정원 노인 요양원에 도착하자 10여 분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치매 환자, 경증 노인 질환자 분들이 거실에 모여 양재수 관장님의 1대1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얌전하게 차례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었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신 분과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 치매 환자분들이 계신 가운데 양재수 관장님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한 분 한 분 정성껏 마사지를 해주시고 계셨다. 순간 나도 저 마사지를 받으면 금방이라도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마사지를 받으신 어르신분들은 공통적으로 "시원해"라고 말씀하시며 매일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듯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기를 공유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취약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뜨거운 봉사를 해주시는 분이

아직은 우리 주변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따뜻한 하루였다.

잠깐 관장님을 기다리는 동안 만났던 즐거운 정원 노인요양원 안재경 원장님이 말했던 "후회 없이 오늘 하루를 케어하자"라는 말과 "환자 분을 대할 때 오늘 마지막이 올지라고 돌아가신 이후 눈물을 흘리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좀 더 정성을 기울이고, 효는 죽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방문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으며, 양재수 관장님과 더불어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봉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서형연 (bonbon2202@naver.com)

맛따라 길따라

양지말 화로구이

홍천 명소 '양지말 화로구이' 대한민국 대표 맛집으로 거듭



◇ 2022년 현재 양지말 화로구이 전경



◇ 유영순(좌)·전명준(우) 대표

시골집 구석에서 시작한 청정 토속음식 대형 공장 가동으로 전국 미식가 만남 '아너소사이어티'로 지역나눔 활동 활발

홍천 양지말 화로구이 대표 전명준·유영순씨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전명준씨의 건강이상으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자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홍천군 외곽에 위치한 시택으로 이사를 왔다. 당시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고민 끝에 시택의 시골집 한쪽 구석 조그만 외양간을 헐고 테이블 6개를 놓고 식당을 시작했다.

유영순씨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맛깔스런 친정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성공해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당시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삼겹살 양념구이를 파는 '양지말화로구이' 식당을 오픈했다. 남들과 같아서 읍내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까지 찾을 리 없다는 간절한 마음에 옛날 시골화로를 사용해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맛있게 구어주듯 양념구이를 메뉴로 정했다.

그렇게 시작하여 알려지기 시작한 양지말화로구이는 전국 각지에서 맛을 보러오는 손님들로 홍천 대표 맛집이 되었고, 홍천에서는 처음으로 30년 이상 명맥

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고객이 찾는 가게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백년가게'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정하는 백년가게는 가게 명맥을 유지하고 역사성과 인지도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해 백년가게로 선정된 전명준 대표는 지역마을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소리를 듣고 본인소유의 토지 (1억상당)을 마을에 회사함으로써 노인 공경의 표상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집안사정으로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못하는 장병들을 위해 매달 20인분 가량의 화로구이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다. 전 대표의 나눔은 이미 1996년 환경미화원 77명에게 방한복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되었고 2018년부터는 참여와 지원을 통한 사회공동체 모임인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너소사이어티'의 명예로운 회원이 되었다. 전 대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리없이 꾸준히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고 봉사의 의미를 밝힐 정도로 사회공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단순한 나눔 봉사활동을 넘어 전명준 대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홍천군변영회장을 역임했으며 용문~홍천 철도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홍천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유명하다. 현재는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중이다.

양지말화로구이는 고용인원 70명, 연간 매출90억원, 연간 누적방문객 80만명에 이르는 명실상부 홍천대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홍천군이라는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중에 식당을 방문해도 화로구이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북적이며 번호표를 받고 길게 늘어진 대기줄을 보면 양지말 화로구이의 명성을 한번 더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소가 되기까지는 전명준·유영순 대표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든 재료는 국내산 농산물만 고집하고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면 고객에게 내놓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도 가지고 있다.

먼 이곳까지 시간을 투자해 찾아오는 손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장 한켠에 커피코너를 만들어 고소한 메밀커피를 무료로 드실 수 있게 배려하고 시골의 자연을 마음껏 감상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식당 주차장 주변 꽃길과 나무숲길을 조성해 사계절 언제나 방문해도 늘 새로운 자연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금까지 양념화로구이가 자리잡는 과정 속에 수많은 대형외식업체 TV홈쇼핑, 인터넷 협업과 동업 등의 제안이 있었으나 연구, 품질관리 측면에서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신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 중이다. 매장 내 포장판매, 백화점 및 인터넷 포장판매 등을 통해 판로를 다변화하고 20억원 투자로 식품공장을 완공 가동 중에 있으며 HACCP 추가 인증을 앞어 두고 있다. 대한민국 식품제조 및 유통산업 신규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가게를 방문한 한 손님은 "다음에 홍천을 찾게 되면 꼭 다시와 보고 싶은 곳"이라고 말했다.

전명준 대표는 "백년가게로 선정된 만큼 미식가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수 있는 업소로 기억되길 바라고 좋은 맛이 오래도록 꾸준히 이어지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홍천을 알리는 음식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복여 기자(boy1145@hanmail.net)



◇ 1980년대 후반 양지말 화로구이 전경

중앙은행, 미국연방준비시스템이 탄생하다

모든 나라는 통화를 관리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앙은행이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는 20세기를 넘어서야 가능했다. 각 주의 영향력이 강한 미국으로서는 주마다 화폐발행권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있었으므로 연방정부의 통합적 중앙은행에 대해 호의적이지 못했다. 1791년 미국 제1중앙은행, 1817년 미국 제2중앙은행은 계약 20년 만료 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873년은 세계적 대불황 시기였다. 온 유럽이 불황으로 침체에 빠졌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미행 정부는 불황의 디플레이션이 금본위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여 1890년 은(銀) 매입법 즉, 은본위제로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금만 영국으로 유출될 뿐이었다. 미국에 풍부했던 은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하여 유동성을 늘이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유동성으로 미국 행정부에 비축되었던 금이 다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이 시중의 화폐로 다시 귀한 금을 사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대불황은 지금도 그러하듯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다. 1890년 뉴저지 주의 경우 큰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큰 기업이 작은 규모의 기업을 인수합병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바야흐로 대규모 기업의 독점적 트러스트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카네기의 철강 트러스트, 록펠러의 석유투

러스트, 밴더빌트의 철도 트러스트, J. P 모건의 금융 트러스트가 이때 형성되었다. 1909년 하워드 태프트가 대통령이 되어 이러한 독점적 트러스트를 해체하려 노력했으나 J. P 모건은 이를 계속 무력화시켰다. 이들 독점 트러스트를 해체시키기에는 경제에 미치는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세졌다고나 할까.

1900년대 초 어려운 경제 환경에다 설상가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발생했다. 대규모 복구공사로 자금이 필요했으므로 미 행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 경제도 좋지 않았고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었다. 금본위제인 미국으로서는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영국으로부터 금을 가져와야 했다. 하지만 영국 잉글랜드 은행은 금의 유출시 물가폭등이 우려되어 미국에 팔려던 금을 유보했다. 결국 화폐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미국 행정부는 공황에 빠지게 되었다. 1907년 금융위기가 왔다. 은행들의 금 보유고가 안정적이지 못해 신용이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러가 금으로 바꾸려는 뱅크런 사태가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금융 재벌 J. P 모건은 유럽의 금융 재벌들에게 미국 국채를 매입하도록 설득했다. 이로써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고 필요한 만큼의 금을 사올 수 있었다. 금융 재벌들은 안전하게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는 미국 국채를 살 수 있었고 이는 은 매입법으로 통화량을 풍부하게 하려던 미국의 계획을 바꾸어 다시 금본위제

를 공고히 하게된 원인이 되었다.

1913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즉 연방준비제도법이 통과되었는데 명칭이 미국중앙은행이 아닌 연방준비시스템(Federal Reserve System)이었다. 민간 자본의 중앙은행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미 정부와 시민들의 감정이 이러한 명칭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연준(Fed)이라고 하는 중앙은행 기관의 역사적 탄생이었다.

미 연준(聯準)이 발행하는 달러는 기존 통화와 다르게 금보유고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달러가 유통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100% 민간 자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 형태로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 J. P 모건의 아들 J. P 주니어(J. P 모건은 1913년 사망함.) 등의 금융 재벌들 자본으로 형성된 셈이다. 그 기능은 물론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역할로 미국 달러를 발행하고, 미국 내 통화정책을 관장하며 은행이나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도 한다. 또한 미국 정부와 일반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미국 중앙은행격의 연준은 미국에 잉글랜드 은행 같은 민간 중앙은행을 심어 놓으려는 금융재벌들로서는 소원 성취한 셈이다. 그 이후로 미 연준은 미국 혹은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질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홍천실버신문 100살맞이

나도, 너도. 나이 듦 그리고 정년

홍천실버신문이 100호 발행을 맞이하였다. 홍천실버신문 발행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나도 나이를 먹는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는다.

나이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이자 누구에게나 반드시 거쳐 가는 관문이다.

당신의 나이 어느덧 칠순이 지나고, 한 해 두 해를 거듭하여 머지않아 팔순을 도래한다. 나이 70이라 함은 한자어로 고희(古稀), 칠순(七旬), 희수(稀壽)라고 불려진다. 고희(古稀)는 두보의 시 곡강(曲江)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로부터 나이 70살을 살기는 드문 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나이 70에 대하여 조금 더 다양하게 풀어쓰자면 첫째, 마음 내키는 대로, 뜻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시기.

둘째, 그리고 집안 일을 자식들이나 후진들에게 맡기는 시기.

셋째, 중국 주(周)나라 때에는 노인이 70세가 되던 해부터 국가에서 지팡이 짚는 것을 허락했다는 의미를 담고있는 시기이다.

즉, 예전부터 나이 70이라 함은 인생을 오래 살았다

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100세 시대를 자랑하는 오늘날, 백수(白壽)라고 불리는 나이 100세의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몸은 늙어 기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는 시기(봉양을 받아야 한다).

둘째, 병 없이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면 하늘이 준 나이를 다 살았다는 시기

셋째, 사람의 수명 중에서 최고, 최상의 수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인구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더욱이 손으로 쉽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나이 60세도 이팔청춘이라 불려진다고 한다. 마을 경로당에 가서도 나이 60은 나이 90 어르신과 서로가 마주앉아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적어도 나이 80-90은 되어서야 동년배 어르신들 사이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놓어도 아무런 불편함이나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일곱-여덟살 먹은 손자뻘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들뻘 되는 사오십대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머지않아 팔십을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할아버지 또는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즉, 할아버지 또는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장에서 "정년"이라는 나이를 두는 것은 나름대로의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퇴하기 마련인데 특히,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판단능력의 저하로 일의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고 자타가 인정하기에 정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관문이 되기도 한다.

정년. 이제는 더 이상 피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정년에 대하여 보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서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를 먹을 수 밖에 없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의 돌봄과 보호를 받으면서 나이를 먹고, 성인 시절에는 어린아이를 돌보고 어르신을 봉양하면서 나이를 먹고,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는 무슨 일인가에 열심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나이는 절로 먹게 된다.

김춘자 기자(limks1214@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중도 자기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다.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삭발해야 하는 스님도 자신의 머리를 자기가 직접 깎을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었지만 삶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크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듯이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므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며 양 일가친척에 가족혈연의 고리를 형성하고, 이웃이 모여 마을을 만들고, 사회를 이루며, 다시 국가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치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다. 현대인들이 최첨단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먹거리나 일상용품 하나라도 자급자족이 아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이기에 혼자서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 내면에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기에 다

하기 보다는 서로 뒤에 서러 하고, 내게 이익이 있더라도 사양을 미덕으로 알고, 배려를 덕목으로 살아왔기에 생존경쟁으로 각박한 사회생활에서 자칫 하다가는 뒤로 밀리고 권익을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공을 인정해주는 포상이나 특정인사 공모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상을 수여하고, 인사공모도

좋은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신을 추천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공상(功賞)이나 인사공모(人事公募)를 정부나 지자체 사회단체에서 시행할 때 누구든지 자기의 공을 내세워 직접 상훈을 신청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 인사공모에 응모할 수 있어서 타인이나 기관에 추천을 받지 않고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서 진보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말 상을 받아야 할,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나 그 직에 충분히 맞는 덕망을 가진 사람인데도 자기 머리 못 깎는 위인이라 공모에 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추천해 주어야 할 관계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이 좋은 기회와 복을 타인을 추천하기보다는 자신이나 지인을 추천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 같은 상이 못되고, 인재 같은 인재를 얻지 못할 것만 같다.

어찌 되었건 자기머리는 자기가 깎기보다는 남이 잘 보면서 깎아주어야 인물이 살 것이다.

내 머리 내가 깎는 시대

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랑해 준 것만큼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는데, 그 실례로 사랑하다가 서로 등지는 경우, 내가 해 준만큼 그에게서 못 받았다는 손해심리가 있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증오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다.

더욱이 우리 민족성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기에 무리 앞에 서려고

추천을 주요시 했었기에 혹자는 추천을 하려 해도 자신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하라고 정중히 사양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는 자신의 머리를 자신이 깎지 못했을 때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기계로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도 있다.

타천자천(他薦自薦)이란 다. 남이

유관기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2022년 기반조성 지원사업” 특강 진행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회장 : 이형주)에서는 『2022년 기반조성 지원사업 장구와 함께하는 민요마당』을 화촌면 군업1리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특강을 갖았다.

군업1리 마을에서는 노인들을 중심으로한 공동체를 이루어 사라져가는 전통 민요에 장구를 더해 학습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공동체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특강(강사 : 양태호)을 진행했다.

윤동렬 공동체대표는 “긴 코로나 시대에 지쳐 있는 구성원들에게 민요와 장구를 학습이 아닌 일상생활 놀이로 접근하고자 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구성원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데 이 사업에 의미를 두고 있다. 활기찬 특강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날리고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또한 이형주 지회장은 “코로나를 겪는 노령시대 공동체의 필요성은 더해가고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장구와 민요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동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고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아니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는데도 의미가 크다. 오늘 특강으로 공동체가 더욱 단단하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2 기반조성 지원 공모 사업으로 홍천군노인회가 지역내 화촌면 군업1리 공간을 중심으로 장구와 함께하는 민요마당(강사 : 김옥순)을 기획하여 작년 이어 연속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타사 월인쉼터

수타사 월인쉼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수타사 월인쉼터(주지 화광)는 8월 23일 홍천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자월스님과 오승훈 신도회장, 구연태 봉사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자월 수타사 총무스님은 “추석 명절 전에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싶어 후원을 하게 됐

다”고 했으며, 신영재 군수는 “꾸준한 후원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수타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전달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물탐방

꽃을 그리시는 할머니

“치매가 무서워 꽃만 그리신다는 할머니”



◇ 변옥분 할머니

어느덧 행복나눔 이불빨래방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치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미있고, 우울하고, 시원하고, 답답하기도 했던 여러 경험들을 생각하면 얼굴 한 칸에서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한다.

빨래방 팀원 모두가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즐기며 활력 있는 인생 후반전을 즐기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얼마 전에 이불빨래 배달을 갔다 온 팀원 중 한 분이 화려한 꽃 그림을 한 장 선물로 받아와서 사무실에 탁자 유리 밑에 놓아 두었다.

그림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우리를 들추고 그림을 빼내어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전문가의 솜씨로 보이지는 않고, 주로 사용되는 전문 화구용품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그렸다고 보기에는 공들여 그린 흔적이 역력한 게 소중한 선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지만 이불빨래 봉사자들에게 감사함과 격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까지 적어 주셨다.

“어떤 분이실까?” 궁금증이 발동하여 할머니 댁에 연락을 드리고 직접 방문을 하였다.

아침 일찍 찾아 보았는데 벌써부터 곱게 차려 입으시고 반갑게 맞아주신다.

방안 가득 할머니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들로 도배를 해 놓으셨다.

젊었을 때 잠시 도시생활을 경험하신 이후로는 줄 곳 양덕원에서 지내셨으며, 오래 전에 남편과 큰 아드님을 먼저 보내시고 근처의 막내 아드님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하신다.

그런 아픔의 기억을 간직하신 분의 그림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밝고 화사한 주제와 구성 그리고 색깔까지 너무나 순수한 아이 같은 할머니의 성품을 한 순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그림들이다.

그림 뒷면에는 “치매가 무서워서 꽃 그림만을 그린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할머니가 치매를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고, 치매가 할머니 무서워서 달아나게 생긴 것 같다.

93세라는 나이에 이런 열정과 집중력을 가지고 꽃 그림을 그리시는 할머니를 보면 치매는 할머니 근처



에 발 끝 한치라도 들어 놓지 못할 것 같다. 바깥 출입이 여의치 않아 집안에만 주로 계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그려보라는 꿈을 꾸신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빨래방 팀원들에게 그림으로나마 고마움을 표시하시기 오래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그림 여러 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감사함을 전해 주셨다고 한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변옥분 할머니의 그림들을 감상하시며 할머니의 정신세계를 직접 느껴 볼 수 있고, 할머니께서 남은 말년에 작은 성취감이나마 느끼실 수 있도록 작은 전시회라도 마련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빨래방 팀원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해 달라는 할머니의 인사를 뒤로하고 집을 나서며 할머니의 보람 있는 말년의 취미생활을 지속적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를 빌어본다.

박호관기자 (hokwan.park@daum.net)

